



봉우 컬럼

성역 33주년에 즈음하여

음식의 맛은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처럼 기본양념이 맛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본양념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숙성에 있다. 그래서 대박음식점에 가면 대개 대대로 내려오는 씨간장, 씨된장을 가지고 있다. 몇 십 년씩 오래 묵은 거란다. 이것이 다른 집들과 다른 맛을 내는 비법이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길, 과거에도 좋았지만 머리가 희끗희끗한 지금의 내가 더 좋다고 한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맛이 든 것 같다. 젊은 시절이 맵고 짭 맛이었다면 지금은 숙성되어 깊은 맛이 나는 모양이다. 다 주님의 은혜다.

사실 내 개인적으로도 지금의 내가 좋다. 목회하기에 딱 좋은 나이다. 풍부한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일단 내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다. 젊을 때는 혈기도 있었고, 욕망도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내게 물욕도, 명예욕도 없다. 다 내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인도하고 훈계하는데 더는 말을 아낄 필요가 없어서 좋다. 이제는 아비의 심정으로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기에 그렇다. 나무는 나이테로 세월을 말한다. 곧 연륜(年輪)이다. 한 자리에서 영광과 환희, 고난과 좌절을 겪으며 숙련되고 숙성된 것을 의미하리라.

어느덧 3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험난하고 외로운 길이었다. 그러나 매순간 숨이 턱에 닿을 만큼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단지 나의 바람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께한 따돌림과 핍박을 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이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

지혜로운 자는 연장의 녹을 제거한다

“저는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갈아주기 위해 이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된 산상집회의 첫 시간, 총회장 목사님의 일성이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얀 눈이 마치 하늘의 만나처럼 쏟아지는 기도원은 한 쪽의 동양화 같이 아름다웠다. 전국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였으나 예루살렘기도원은 성령의 불길로 뜨거웠다. “집의 수도를 틀었는데 녹물이 나온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먹이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녹물이 나오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할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은 오직 기도로만 부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시107:10~11). 그분의 말씀과 뜻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시며(시107:14), 눈물을 깨끗하시고 쇠 빗장을 꺾으시며(시107:16), 위경에서 건지시고(시107:20),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며(시107:29),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시107:35),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십니다(시107:38).

니다. 그래서 당신의 입에서 기도 대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세상적인 저속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산상집회는 동계수련회입니다. 일종의 전지훈련장입니다. 이 성산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파이프에 녹을 제거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어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슨 물을 마시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것이 결국 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영이 녹슬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



기도원 산상집회(2017년 12월 11일 ~ 14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시에서 보내는 아리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리수는 세계가 인정한 수질입니다. 문제는 당신 집 안에 있습니다. 수도 파이프가 녹슨 겁니다. 그것을 교체해야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녹이 나옵니까? 곤고하고, 병들고, 되는 게 없고, 가난합니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파이프가 녹슬어서 그런 겁니다. 그 파이프의 녹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당신의 삶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당신과의 연결 파이프에 녹을 제거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기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잘 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위대하고 특별했기에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들처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녹슨 파이프에 녹이 제거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삶이 매일 그 밤에 그 반찬인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녹슬었기 때문입

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영혼이 녹슬면 범사에 녹슬고, 육체의 건강까지 녹슨다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기도하여 삶 속의 녹을 제거합시다. 한순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하룻밤 기도으로도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 후에 한 시간 가량 통성기도를 시키셨고, 이어 병든 자들을 단에 올려 귀신을 쫓으셨다. 현장에서 병든 자가 일어나 걷고, 귀머거리가 말을 하는 등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위력이다.

신묘수

jesus5526@gmail.com



기도는 생명선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19:101~107)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받자

노예 주제에 감히 한 나라의 총리대신이 된 자가 있습니다. 더욱이는 목동 주제에 왕이 된 자도 있습니다. 청상과부에서 재벌의 아내가 된 자도 있고, 고아 주제에 왕비가 된 자도 있으며, 서출 주제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된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요셉이고 다윗이며, 룿이고 에스더요 입다입니다.

왜 그들은 주제를 넘은 신분에 이르고 그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도 넘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있나요? 있따마다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열거한 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역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 다. 그 사랑에 하나님이 탄복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아시는 바 되었던 것입니다(고전8:3).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엄청난 재력과 권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싫어해서 어긋난 길로 가며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자에게 주겠습니까? 답은 뻔한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나고 큰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 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함이니라”(잠8:17~21). 부귀와 재물과 의를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놓은 것은 가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고전2:9).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자고로 더 사랑하는 것에 먼저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들의 공통된 불평이 이것입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아내가 자기 먼저 챙겨주더니, 아이가 생기고 나니 자기는 찬밥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에 아이가 먼저 되고 자동으로 남편은 순위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먼저 챙긴다면, 주일보다 돈 버는 일을 먼저 챙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에 게 하 나 님 의 사랑이 있 겠습니까? ‘본토와 아비와 처자

를 뒤로하고 죽음을 앞세우고 주만 따라 갑니다.’ 이것은 ‘사도의 길’이라는 노랫말입니다. 제가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 우선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만 위해 살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머니 회갑과 부흥회가 맞물렸을 때 저는 집회에 나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요. 집회 다니느라 아들들 입학식, 졸업식 한 번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아신 지라 방배동 농사꾼의 자녀인 저를, 많이 부족한 저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시고, 죄악에 빠진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만드는 역군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시고,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사도의 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

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14:15).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통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한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오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

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

망 하 리 라 여 호 와 께 서 명 하 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찌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신28:3~13).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짹짹 씹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신28:2)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주신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나

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14:21).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신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있다면 그것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잠언 1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그 비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도 하셨습니다. 물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어찌 그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이 이를 어여뵈 보시고 축복의 창고 문을 활짝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세요.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십니다. 주시려고 작정한 복도 못 받는 어리석은 자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교단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우선으로 살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절대 능력자시며, 無를 복종시켜 有가 되게 하시고 有를 복종시켜 無가 되게도 하시는 큰 권세자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그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 당초에 그렇게 결정하고 작정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도 성도를 부르신 것은 그와 함께 있게 하시며 그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성도가 없는 곳에는 선교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성도가 없는 곳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

성도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지체다. 주님은 자기의 성품이 성도를 통해 나타나고 성도를 자기의 지체로 삼아 이적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오늘날 무기력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적이 없는 것을 정상으로 여겨 그 길로 달려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권세가 부여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의 권세는 우리 속에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 위대한 권세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우리 신앙이 살아 있게 되는 것이다. 성도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이다.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이적이 따르게 되어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능력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하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사역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주님을 비난하던 자들도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아무런 힐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보고 입을 다문 것이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계명과 계시를 현재화시킨다. 이것이 곧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의 모든 증거가 현재화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의 정통성 수호를 사명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나타내며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한 자들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자랑스럽지 않은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각인되지 않고 사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을 천사들에게 맡기셨지만 복음은 성령께 맡기셨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임무요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지난 12월 8일, 총회장 목사님은 대전교회에서 금요예배를 인도하셨다. 목사님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자’는 말씀으로 대전교인들을 독려하셨다.

“학개서 1장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찌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찌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찌라도 흠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피 불찌니라’(학 1:6~7)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자기 형편을 핑계로 성전 재건을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 우선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전교회도 성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인 이역사牧사를 비롯해서 대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분이요(고전 2:9),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롬

8:28). 성전의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하고 학개서 말씀처럼 나의 소위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넉넉히 대전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거하는 집보다 더욱 좋게 짓고 싶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고로 하나님이 이를 허락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을 위해 여러분도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대전교회를 좋은 곳에 짓게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도 예비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대전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한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 오늘의 메시지 ::

주홍글씨

‘주홍글씨’는 17세기 미국의 청교도 이민자들 사회에서 간음한 여자의 가슴에 붉은 글씨로 간통한 여자를 뜻하는 “A(Adultery)”가 새겨진 여인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지을 수 없는 낙인. 당시 미국의 목화 농장 흑인들에게는 등에 불에 달군 낙인을 찍었다. 이 주홍글씨나 낙인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집 앞에 옷 수선을 맡기는 단골집이 있다. 주로 구제품을 구입하다 보니 단골이 됐다. 바느질하는 아주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항상 교회 집사, 권사님들이 들락거리는 집이다.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얘기꽃을 피운다. 어쩌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거들었더니 “목사님이세요?” 묻길래 “아닙니다.” 했더니 자기들끼리 의논했는지 선교사님이라 부른다. “내가 왜 선교사예요?” 물으니 자기들은 다 안다며 웃는다. 선교지에서 돌아와 잠시 쉬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 내가 들어서면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 웅기종기 모여 내 얘기를 경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주 은혜스럽게 내 말을 받아들였다. 전도사 발령 나기 전이라 어디 선교사냐고 물어도 그냥 넘기다가 전도사로 발령 받은 후에 다시 묻길래 “종로기도처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니 “목사님이 누구세요?” 물어 “이초석 목사님입니다.” 하고 보니 이미 얼굴이 굳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손님이라 차마 말을 못하는 모양새다. 기껏 하는 말이 “아니 떨정한 교회 뇌두고 왜 88체육관에서 해요? 차도 막히게 하고.”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 큰 교회가 왜 교회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해외선교하느라 교회를 못 지었어요.” “그건 핑계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교회가 없는 건.” 거기까지 얘기 나누고 다음에 방문하니 조심스럽게 묻는다. “근데 이초석 목사님이 이단인건 아세요?”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단인걸 다 아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다는 취지다. 할 말은 많지만 닫힌 문이 열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단은 삶도 이단처럼 삽니다. 돈 문제 여자문제. 자기가 예수라는 놈. 나는 이초석 목사님을 50년 가까이 안 사람입니다. 난 그분의 삶

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난 배울 만큼 배우고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하고 말았다.

오랜만에 만난 예전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근데 이사장. 그 목사님 소문이 안 좋던데. 알어?” 이젠 그래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 격이 좀 있다. 5년 전쯤,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 신학교를 갈 예정이라고 말씀드리니 교단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물어 “이초석 목사님입니다.” 하니 듣기에도 민망한 말들에 어디서 들었는지 이상한 소리를 줄 줄 읊는다.

더욱 우스운 것은 인터넷을 보니 예수중심교회는 목동에 있는데 이초석 목사는 나이가 많아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모든 걸 넘겨주고 있다고 한다. 근데 가관인 건 그 아들 이름이 ‘이시대’란다.

한번 찍힌 주홍글씨, 그 낙인이 이렇듯 집요하다. TV에서 얼굴을 온통 문신한 미국인이 수많은 수술 끝에 정상적인 얼굴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과학도 의학도 발달하여 주홍글씨를 지울 수도, 낙인을 지울 수도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세상의 오해와 편견을 지우기는 쉽

지 않다.

누가 부인하랴. 그 동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금의 예수중심교단을 이루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신 업적을, 가시밭길 걸으시면서 이룬 값진 결실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목사님께서야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고, 믿음엔 타협이 없다고 하시며, 평론가는 평론을 하고, 비평가는 비평을 해야 먹고 산다’며 그냥 넘기신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바로 잡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사탄의 꽃처럼 삶의 향기를 날리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목사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래서 낙인이 없어진 민낯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 문을 누가 두드리고 있는가. 그 길을 누가 계속 찾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나는 다만 내가 아는, 바로 그 주님께 아뢰고 강하게 개입하여 주시길 바랄 뿐이다.

이광주 전도사
leekilkj@naver.com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는 몸을 관리해야 할까요? 인생 100세 시대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내가 아프면 가족이 고생하니까? 전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돌보는 일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이지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을 몹시 화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상들을 다 엮어 버리셨지요. 유월절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와 양, 비둘기를 사고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하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동물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엮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강원도 두메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본 고무신이 너무 아까워서 신지도 않고 애지중지 들고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고무신을 시냇가에서 씻다가 실수로 한 짝을 놓쳐버렸습니다. 빠른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는 고무신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노하게 하는 성전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성전, 나는 지금 어떤 성전인지 반성해봅니다. 건강한 성전인지, 정결한 성전인지, 기도하는 성전인지 아니면 성전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전에 아는 선배에게 책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제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그런 식으로 돌고 돌아 몇 달 후 그 책이 제게 돌아왔을 땐 아주 너털너털해져 있었습니다. 아끼는 책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책 상태를 보자 무척 화가 났고, 그다음부터는 그 선배의 마음가짐이 못미더워 보이더군요. 너털해진 책의 이면에서 책 빌린 사람의 무책임함을 보았고, 그 무책임의 이면에서 저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내달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따라갔는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졸지에 홀로된 상수는 고아처럼 온갖 고생을 하며 한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텔레비전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마침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그의 형님이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무려 50년 만에 가족들이 극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

지도 치매에 걸려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돈, 명예, 쾌락...,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며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 영생복락의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지도 치매에 걸려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돈, 명예, 쾌락...,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며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 영생복락의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의견차이

어느 날 해와 달이 말씨름을 했다.

해가 말했다.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달이 말했다.

“아니야, 나뭇잎은 은색이야.”

달이 또 말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잠만 자더라.”

그러자 해가 반박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여.”

달이 말했다.

“그럼 왜 땅이 그리 조용해?”

해가 다시 말했다.

“내가 보기엔 언제나 시끄럽던데 뭐가 조용해?”

그때 바람이 나타나 말했다.

“나는 하늘에 달이 떠 있을 때나 해가 떠 있을 때나 세상을 다녀와서 잘 알아. 해가 세상을 비추는 낮에는 해가 말한 대로 세상은 시끄럽고, 사람들도 모두 움직이고,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그러나 달이 세상을 비추는 밤이 오면 온 땅이 고요해지며 사람들은 잠을 자고, 나뭇잎은 은색으로 보인단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 나만 옳다는 사람이다. 내 생각, 내 말은 다 옳고, 상대의 말이나 의견은 틀리다고 주장하는 자다.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분쟁이 사라진다.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생각과 마음은 아집(我執)이다. 아집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소통된다.

예수중심편집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

몇 해 전, 우리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랑의 학업을 마치기 위해 뉴질랜드로 떠났다.

우리가 모아둔 자금만으로 뉴질랜드 유학생활동을 해야 했기에 약간의 걱정은 있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자라온 터라 나름의 자신이 있었다.

신랑은 학생비자, 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단기워크비자의 신분으로 설렘 반 긴장 반의 타향살이를 시작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 초기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둘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랑이 있었기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있었다.

하지만 부딪혀보니 현실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학비, 집세, 식비, 생활비 지출로 모아둔 돈이 점점 떨어져갔다. 나는 스시 가게 아르바이트를, 신랑은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고 슈퍼마켓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학업과 일을 병행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두 번째 학기의 학비를 위해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학비를 채워주셔서 두 번째 학기 또한 잘 마칠 수 있었다. 두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비를 내야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학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다.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 시기에 마음 속 깊이 늘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분만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학기가 시작되고 기도했던 학비가 원하던 시기까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학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라며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늘 기도해주시고 말씀해주시던 엄마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단 0.01%의 불신도 없이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어떠한 결

과가 오든지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를 인도해주시는 과정이라고 하셨다. 그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것이었다. 현실에 부딪혀보니 말만이 아닌 나의 모든 정신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무엘하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왕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일주일동안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한대로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바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께 나아가 경배한 후 음식을 먹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왜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불평, 불만하지 않았다.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바로 이것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원하던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겸허히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다윗은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다. 그 일이 있은 후 귀국을 준비하면서 다시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었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더니 주위에서 하나님을 도움이 오기 시작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더욱 감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주님의 뜻을 말이다.

정효경
happy_holly@naver.com